

문화과학적 탐색을 통한 알렌컬렉션 황실문화재 관광자원 활성화방안

구경여
한국국제관광개발연구원 연구이사

안태홍
한국국제관광개발연구원 연구이사

Study of Developing Allen's Collection Imperial Resources as Tourism

Kyung-Yeo, Koo^a, Tae-Hong, Ahn^b

^a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Tourism Development, South Korea

^b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Tourism Development, South Korea

Received 30 November 2022, Revised 15 December 2022, Accepted 23 December 2022

Abstract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define imperial cultural properties and pass on and provide the elegant value of imperial cultural properties with the Allen Collection's promotion to retrieve imperial cultural properties.

Design/methodology/approach - This study was approached to deal with the essential interpretation of cultural improvement through discussion in the cultural science approach

Findings - As a result of examining ways to revitalize tourism resources using Allen Collection, it is necessary to cultivate international manners and knowledge levels in strengthening imperial awarenes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imperial museums, enacting laws on standards for designation of imperial cultural assets, and promoting them. In addition, policy needs such as the development plan of the imperial cultural festival, re-establishment, application, reuse, re-establishment, and reproduction according to environmental changes, and technical support and monitoring systems for investigating and preserving imperial cultural assets are needed.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The study on the device imperial cultural assets as tour resources the cultural assets mate be not only preserved and inherited to the descendant but also useful in contemporary national emotion positively. for we could obtain wide national support and co-operation in the protection work of cultural assets. What makes our cultural assets leaved indifferent before destruction like this most of all, it is form indifference of the people, we must make an effort to meet with recognizing the value of useful cultural assets by mean of utilizing cultural assets as tour resources to inhibit more damage of destruction of cultural assets.

Keywords: Allen's collection, Imperial assets, Tourism resources

JEL Classifications: C12, C83, D40, L15

^a First Author, E-mail: kkay2000@naver.com

^b Corresponding Author, E-mail: mdteon@naver.com

© 2022 The Institute of Management and Economy Research, All rights reserved.

I. 서론

본 연구는 미국 ‘알렌컬렉션’ 문화재환수 활동 제1차 연구조사 보고발표회 자료집과 (사)대한황실문화원의 국외소재문화재 찾기 추진계획을 토대로 알렌의 황실문화재를 관광자원화 활성화방안을 제시하고자한다. 이 연구는 조선왕실뿐만 아니라 대한제국 황실의 존재와 이시대의 외교적 노력, 이를 통해 대한민국 건국의 기초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환수 문화재를 통해 문화재환수의 관심을 높이고 이에 따른 조선왕실 및 대한제국의 유물 환수에 대한 국민적, 국제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의지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 중 특히 대한제국 황실 문화재인 알렌(Allen, Horace Newton, 미국 선교사 및 외교관, a medical missionary)컬렉션이 의미하는 것은 고종황제와 알렌과의 인연 및 행적, 그리고 대한제국과 외교, 특히, 현재 미국과의 관계에 대한 역사성과 상징성이 있다.

조선왕실과 관련한 드라마 제작 보급, 고궁박물관에서의 왕실문화재에 대한 관람객 증가 등 조선왕실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왕실 문화재의 위상은 왕실문화 콘텐츠 개발과 가치에 대한 재정립으로 높아졌고, 궁, 능과 조선왕실의궤 등이 세계유산으로 지정으로 되었다. 또한 대한제국의 설립자 고종황제의 직계손인 황사손과 (사)대한황실문화원은 조선왕실 문화 전승 및 계승, 황실문화재 보존, 왕실문화 콘텐츠 개발과 보급을 위해 궁중유물전시관 설립, 조선왕실 역사박물관 추진회 구성, 국립 고궁 박물관 전면개관과 전시, 연구기능 강화 등 노력을 더욱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의 발전으로서 공간적 영역에서의 문화재는 체험 상품형 관광자원이나 관광법에 의한 관광지로서 지정하여 문화재를 문화여가적 활용요소로 이용하고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고궁박물관에서는 궁중황실문화전승과 기관의 허브적 기능을 설정하여 변화를 제시하고 있으나 대한제국 황실문화의 전체를 이해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접근이다. 그리고 관광자원으로써의 대한제국 황실문화재에 관한 접근과 연구 또한 전무한 실정이다.

알렌컬렉션은 대한제국시대의 황실의 생활영위양식을 외교문화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문화재이고 이를 관광자원화하는 측면에서 기존 관광자원 개발의 방향과는 다른 측면을 살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알렌 컬렉션의 대한제국 황실 문화재 환수 추진을 계기로 황실 문화재를 재정립하고 황실 문화재인 알렌컬렉션에 내재해 있는 대한제국의 생활영위양식과 관계된 외교문화와 외교 품격적 가치를 유 무형의 관광자원으로서 전승, 제공 할 수 있는 기반을 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베버의 문화과학에 대한 해석을 살펴본 후 전통적이고 사회문화적 관점에서의 문화를 해석하고, 알렌 컬렉션 문화재를 활용한 관광자원으로써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하여 대한제국문화 속 황실만의 유무형의 가치의 한정성을 벗어나는 패러다임을 새롭게 고취할 시대적 요구가 있다는 데 그 당위성을 정립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문화재의 문화과학적 탐색¹⁾

베버가 던진 화두의 핵심을 그 자신의 말로 표현하자면 ‘문화생활을 다루는 학문영역에서 이를 과학성의 성격을 다루는 문제로 가려면 다차원적 구조가 필요하다. 사회문화적 현상에 대한 분석이 ‘과학’의 단계를 획득하려면 경험적 검증이 가능한 객관적-사회적 사실들과 계량적 입증으로서 가능해진다.

베버가 직면했던 ‘큰 문화적 문제들’은 문화생활을 다루는 학문영역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 진리가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의 필요성은 논쟁과 연구방법, 개념구상의 성격이 끊임없이 변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행위자 관점에서 인간의 문화생활을 다루는 모든 과학의 가장 중요한 과업 가운데 하나이다. 사회정책의 차원에서 기술적 고려만을 통해 해결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정책적인

1) 이 논문에서 베버의 문화과학에 대한 논의는 막스 베버의 <문화과학과 사회과학이 방법론 I>(Gesammelte Aufsätze zur Wissenschaftslehre)(염동훈 역, 일신사, 2003: pp. 51-117)의 내용을 정리한 것임을 밝혀둔다.

문제는 일반적인 문화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문화의 의의가 포괄적이면 포괄적일수록, 경험적 지식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 문제에 명백한 답을 찾을 가능성은 그에 비례해 줄어든다. 단지 타당한 윤리적 계율이 가진 존엄성에 비견할 만한 존엄성을 문화가치의 내용에 부여할 수 있다.

문화의 의의가 본질에서 경제적 영역에 있으며 그 유형으로는 첫째, 일반적으로 한 제도가 의도적으로 경제적 목적을 위해 창출되거나 혹은 사용될 때 성립된다. 둘째, 종교적 생활의 제 현상들과 같이 최소한 일차적으로는 그것이 가진 경제적 의의라는 관점에서 또는 이 경제적 의의 때문에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유형의 현상은 때에 따라서 경제적 관점에서도 중요성을 획득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현상은 경제적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들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셋째, '경제적으로 규정된' 현상들을 살펴보면, 한 시대의 예술적 취향의 방향 등과 같이 이 현상이 행사하는 경제적 영향은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지만, 현상 자체의 특성의 중요한 부분들이 경제적 동기 또는 경제적 조건에 의해서 강하게 영향을 받을 때 경제적으로 규정된 현상이다. 마지막으로 국가 행위 및 국가의 특성이 '경제적' 영역 이외의 영역에서도 경제적 동기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경우, 국가는 '경제적으로 규정된 현상'이다.

최호근(2005)은 19세기 말 베버가 언급한 문화와 문화과학 개념을 분석하였는데 문화가 19세기 후반에는 공공적으로 논의되는 이야기가 됨에 따라 인문사회과학을 가리키는 명칭도 정신과학에서 문화과학으로 지칭되어 인간의 특수한 성격, 곧 인간의 창조성과 의지에 주목하게 된다. 베버의 문화사 구상은 많은 분야에 논하고 있지만, 자본주의 정신의 발생에 대한 고찰에서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근대에 관한 논의에서 중요한 관점 중 하나는 자본주의와 종교의 문화적 의미였다. 베버는 '자본주의 정신'에 주목하게 되는데 이는 '생활 영위 방식' 개념이다. 자본주의 정신과 자본주의 발전은 오히려 서구 근대 문화의 구성적 요소인 합리주의적 생활 영위 양식의 발달을 촉진했다. 베버는 근대의 시작점에서는 경제문화가 생산적인 자본주의에 의해 장악당하고 개척되었다 생각하였다. 이는 시민들의 생활 영위 방식을 특징짓는 것이었다.

베버는 이념형적 인간을 '문화인'이라는 말로 표현하였다. '문화인'이란 삶을 살아갈 때 최적의 효율적 수단으로 목적 실현 방법을 찾아가는 목적합리적사고와 목적이 갖는 가치까지도 성찰하는 가치합리적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한다. 이렇듯 베버의 문화를 행위적인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치 합리적 행위는 성과에 상관없이 어떤 특정한 상태가 가지는 윤리적, 미적, 종교적 등의 고유가치에 대한 의도적 믿음을 통하여 결정될 수 있다(Weber, 1968: 25). 목적 합리성이란 삶의 궁극적인 가치와 의미로부터 개인의 모든 행위가 나오며 이는 중요한 삶의 측면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 목적 합리적 행위는 타인의 행동에 대한 기대와 합리적 성과로써 이러한 기대들이 추구되고 특정된 목적들을 위한 '조건' 또는 '수단'으로 이용되면 결정될 수 있다(Weber, 1964).

2. 알렌 컬렉션 역사적 배경²⁾

알렌은 한국명 안연, Allen, Horace Newton, 미국선교사 및 외교관으로서 1884년 한국 최초의 신교 의료선교사로 내한, 주한 미국공사관 의사가 되어 먼저 선교사업을 했다. 이해 갑신정변으로 배에 깔려 쥘러 크게 다친 민영익(명성황후의 친조카)을 몇 달간 치료 해 살려낸 것이 계기가 되어 왕실어와와 고종의 정치고문이 되었고, 1885년 고정이 개설한 한국 최초의 현대식 병원 광혜원(후후, 제중원)의 의사와 교수로 일했다.

1887년 참사관에 임명되어 주미 전권공사 박정양의 고문(Advisor)으로 도미, 한국에 대한 청나라의 간섭이 불법임을 국무성에 규명하고, 1890년 주한 미국공사관의 서기관으로 외교활동을 시작, 1895년 운산광산 채굴권, 이듬해 경인철도 부설권을 미국인 모스(Morse)에게 알선, 넘겨주었다. 1892년 (한국회보)를 간행하고, 1897년 주한 미국공사 겸 총영사가 되어 전등, 전차, 도로 등의 설치를 위한 전력회사 설립권을 미국에 넘겨주었다. 1900년 영국왕립 아시아학회 한국지부를 결성하고, 이듬해 주한 미군전권공사가 되었으며, 1904년 고종황제로부터 훈일등과 태극대수장을 받았다. 1905년 을사늑약 체결 때 일본을 규탄하고 한국 입장을 옹호하다 중립 노선을 취하는 루즈벨트에게 파면되었다. 그 후 미국으로 귀환하여 의사로 지내다가 여생을 마감하였다.

2) (사)대한황실문화원 '국외소재문화재 찾기 공모사업 추진계획서' p1~2

이러한 알렌이 민영익을 치료해 살려낸 보답으로 고종황제와 명성황후로부터 귀중하고 많은 선물을 하사받았으며 그리고 한국에 머무는 동안 진료를 통해 선물을 받았거나 구입했거나 하는 등등으로 이른 '알렌컬렉션'의 문화재를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세계 최대 종합 박물관인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118점을 지증해서 현재 스미소니언박물관 자연사박물관 전시 및 지하 수장고에 보관 중이다. 그러한 알렌이 1927년 스미소니언박물관에 기증한 물품 중 2점을 되돌려 달라고 해서 현재 개인인 그의 자손들이 소장하고 있는데, 그 중 '금과갓끈'은 고위대신들만 하는 것의 끈으로 호박으로 이어 만든 것으로 고종황제가 알렌에게 충성스런 신하가 되어달라고 하사한 것을 오하이오 톨레도에 살고 있는 알렌의 손자며느리인 캐서린 클레멘트가 개인 집에 보관하고 있다.

명성황후 또한 알렌 부인에게 민영익 치료의 선물로 '화조도접선'이란 비단과 오색실, 상아부채살로 만든 조선후기의 부채를 주었는데 현재 알렌의 증손녀인 리디아 알렌이 오하이오 톨레도 집에 알렌가문의 가보로 여기며 소장하고 있다. 또한, 기증하지 않고 개인 소장품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손자며느리인 캐서린 클레멘타인에게는 민영익이 칼에 찔릴 때 갖고 있었다는 '육선재용두형어도' 1점이 있고, 고려시대, 12세기 것으로 고종이 민영익 치료의 선물로 알렌에게 처음으로 하사한 것으로 증손녀인 리디아 알렌이 갖고 있는 것으로 '청자음각당초문대접' 1점이 있다. 이에, 알렌이 스미소니언박물관에 기증한 우리 문화재에 대한 본국 귀환 및 기증반환이 필요하며, 알렌의 손자며느리와 증손녀의 나이도 90여세와 70여세로 지금 그대로 후손에게 전해질 경우 보존성과 역사성이 퇴색하고 변질될 것으로 문화재의 본국인 한국으로 되돌아와 한국의 품에서 대한제국과 고종황제, 그리고 알렌의 뜻과 업적을 길이 보존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이러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국외소재 문화재 자원의 환수 및 가치복원의 활성화 방안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3. 황실문화재에 대한 관련연구 동향분석

황실 문화재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황실의 상징성, 정체성을 역사적으로 서술하는 연구와 황실 문화재를 관광사업적인 측면에서 다루고 있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대한제국이라는 시대적인 상황과 함께 황실 문화재의 정립과 정체성을 찾는 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지만 그 가운데 김연화(2016)는 대한제국 황실문장으로 쓰인 '오얏꽃 문양'이 문화적 산물로서의 민족의 흥이 담겨있으며 동시에 민족정신을 계승하여 정체성을 이어 받는데 중요한 매개체 역할과 민족아의 의식적 공지를 갖는데 있어서 규범이 되는 전제가치를 갖고 있음을 규명하였다. 특히 대한제국의 탄생과 황실의 위상으로써 이화문은 상징성이란 범용적인 정서성과 형태의 명확성을 지닌 객체로 직접적인 소구력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대한제국황실 표상으로서 제정된 이화문은 현상적 의미를 지닌 표상적 행동의 의식적 활동이 된다.

또한 황실의 권위를 신장시키고 가치함양을 위해 김광백(1994)은 일제치하에 단절되었던 대한제국 황실은 계승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면서 황실복원을 위한 입헌구주정 호소하며 현실적으로 황실복원운동이 입헌구주정 수립으로 완결되기는 어렵지만 결국 황실복원운동의 적극 참여는 국민의 통합과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큰 의미를 주고 있음을 강조 하고 있다.이처럼 황실과 직접적인 연구는 의미를 상징하는 정도의 연구로 그치고 있으나 미시적인 측면에서 김준혁(2014)은 수원화성의 복원뿐만 아니라 조선 후기 문예부흥의 시대로 조선시대 왕실기록 무예도보통지를 기반으로 수원화성내에 스토리텔링과 문화콘텐츠 개발의 방향과 내용을 제안하였다. 이는 지역 문화발전과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왕실기록의 가치와 문화콘텐츠의 고증과 창작에 대해 살펴보았으나 문화콘텐츠로서 활용하는데 미흡했다. 따라서 향후 조선왕조 기록들의 재해석과 디자인을 통해 새로운 캐릭터가 만들어져 이를 통해 다양한 관광상품들이 만들어 질 것을 강조하였다.

국립고궁박물관 중장기 발전계획(한국문화재정책학회, 2010)은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따른 환경과 박물관을 방문하는 관람객, 관광객, 소비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을 소개하였다. 현실적으로 접근 하고자 조선왕실 전문 박물관 방향설정이 21세기 이후 새로운 가치 중심과 체험형 전시, 일반참가자가 적극 활용되고 교육적가치가 뛰어나게 계획을 하였다. 특히 전통문화, 왕실문화 등에 대한 소비욕구도 문화소비의 한 모습이며 이에 따라 희소성, 유용성 즉, 구매력을 갖춘 문화콘텐츠의 개발과 보급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상황임을 제시하였다. 고궁 조선왕실문화에 외국인 선호도가 높은 만큼 더욱이 격조 높은 왕실문화에 대한 전신과 대내외 홍보 및 교류와 조선왕실문화 연구기능 수행으로 연구의 허브적 역할 수행을 강조하였다.

반면에 궁중문화축전을 대상으로한 연구(황희정·박창환·이훈, 2015)는 문화재를 관광상품화 하여 관광객 수요에 충족시켜주는 문화재 활용법은 관광객을 기만하는 것이라는 비판 갖고 있다. 문화재 활용 상황에서 관광객이 진심을 추구하고 체험하는 상황에 주목하여 현상학적 접근 연구방법을 통해 심층면접을 하였다. 그 결과 궁중문화축전을 통한 진정성 체험 내용에 대해서 진짜라고 인식하지 않고 있음을 나타냈다. 즉 문화재 활용한 관광체험은 진정성이 느껴지는 것이 맞지만 공급자의 연출이 재미와 흥미를 더 느끼게 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기존의 연구(김지선·이훈, 2009; 변찬복·한수정, 2013)에서와 마찬가지로 문화유산관광에 대한 관광분야의 접근은 관광객의 체험과 재미를 중심으로 접근함으로써 문화유산이 지니는 가치에 대한 강조 및 전달이 다소 미흡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황실 관련 연구는 고궁조선왕실의 의복이나 생활용품 정도의 소프트적인 상품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왕실문화 콘텐츠 보급은 황실자체의 비중 보다는 전통적인 의미, 과거 시대의 역사적 의미만을 담을 뿐 황실 문화의 격조 높은 기능이나 정통성을 통한 위상 정립을 위한 정체성 확립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계이다. 이렇듯 연구를 통해 황실문화재의 가치를 복원하고자 하는 시도와 황실 문화재를 표방한 다양한 행사와 볼거리, 체험형태는 소비자 측면에서의 상업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어떠한 측면에서든 황실 문화재를 통한 위상을 정립하고 재미와 흥미 이상으로 황실의 상징성과 오랜 가치를 국내외에 알리고 미래 가치를 높이고 보존하기 위해 문화재의 법제도적인 부분의 강화와 하드웨어개발과 정통성의 가치가 더 빛나게 할 수 있는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문화재활용 관광자원화 연구 현황

1) 문화재활용 개념과 알렌 컬렉션의 문화과학적 탐색

문화재란 인류문화활동의 소산으로 문화적인 가치를 지닌 것을 총칭한다. 즉 도덕, 법률, 경제, 민속, 예술, 과학, 종교, 생활양식 등 여러 분야를 망라한다. 다음으로 문화재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법제처: 관광법규)

Table 1. 지정문화재

지정권역별	유형별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사적	명승	사적 및 명승	천연 기념물	
국가지정문화재	국보	보물	중요무형문화재	사적	명승	사적 및 명승	천연 기념물	중요민속자료
도지정문화재	지방	유형 문화재	지방무형 문화재	지방기념물				지방민속자료
문화재자료	문화재자료							

이외에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는 매장문화재(토지, 해저, 건조물에 포장된 문화재와 일반동산문화재(50년 이상 된 동산 문화재, 그리고 기타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향토 유정, 유물) 가 있다. 문화재 활용에 관한 사전적 의미를 정리하면 ‘문화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기능과 능력을 소멸 시키지 않는 테두리에서 문화재를 원본적 그대로의 상태로 능력이나 기능을 복원 활용해내는 행위’라고 말 할 수 있다. 두 번째 사회적 의미로 ‘문화재에 내재된 가치기능, 능력 등을 살려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또한 문화재의 잠재적 가치·기능을 재발견하여 문화재 본질에 부정적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인문교육학적 가치, 여행관광학적 가치·경제사회적 가치 등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일체의 행위’(박동석, 2017)라고 정의할 수 있다.

법률적인 측면에서 문화재의 지정에 관해서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중앙문화재

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한다. 시·도 지정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중 시·도 문화재보호조례에 의거 지방문화재위원회 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문화체육부는 국가 시·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중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것 중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지정한 것으로 건조물, 사적 등의 구별 없이 일괄적으로 지정한다.

이렇듯 문화재를 지정하는데 있어서 공간적인 분류와 지정 대상자가 다를 수 있는데 황실문화재의 경우 위의 분류 및 지정방식을 구체화 하여 곳곳에 산재돼 있는 시대적 황실 문화재를 별도의 기준으로 개념화하는 것이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갖게 될 것이며 나아가 오락적 활용도 문제에서 진정성을 느끼는 수준에서 더욱 주제적인 요소를 지닐 것이다. 이러한 문화재를 계승 발전시키고 역사적 고취를 위하여 박물관에 소장하여 국민이 통합된 시각으로 역사유물에 대한 자긍심을 느끼게 하였다. 이중 궁중박물관은 문화재 중에서 국보급 왕실과 고궁, 황실을 대표하는 문화재를 전시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람객의 역사적 교육과 가치를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황실문화재에 대한 인식이라기보다는 전통적, 귀족, 왕실의 생활문화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

특히 알렌 컬렉션의 경우도 알렌 개인에게 황실에서 하사된 선물로서의 의미만으로 축소된 가치만이 남아 있는 것은 알렌 컬렉션 중 명성황후의 상아부채 반환 보도 기사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나 베버의 객관적이고도 사회적인 사실 측면에서의 문화과학적 탐색의 관점은 대한제국 시대의 가치를 다른 관점으로 보여 주고 있다. 알렌이라는 개인 행위의 주체가 고종 치하의 근대대한제국황실의 외교문화와 그 시대의 황실 외교문화의 이벤트적 사건의 궤적을 외교일지, 사료, 하사받은 물품 등을 통하여 보여 주고 있는데 이는 대한제국으로 변화된 생활영위양식에서의 외교와 천주교 박해에서 돌아서서 외부 문화권에서 온 기독교 선교사였던 알렌에 대해 외교대신으로서 임명할 수 있었던 변화를 사회문화적 현상으로서 이해 할 수 있고 고종과 주변인들의 어떠한 목적 합리적 사고가 스며들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베버의 역작인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정신'은 자본주의라는 생활영위양식을 종교의 관점에서 문화과학적 의미로 다루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제국이라는 틀에서의 생활영위양식은 그 핵심이었던 고종이 어떠한 목적과 가치 합리적인 사고를 윤리적 미적 종교적 수준을 포함한 문화인의 가치 합리적 행위로서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의 외교정책의 최측근이었던 알렌과의 교류에서 파생하는 알렌 컬렉션을 통해 '외교문화'라는 관점을 통해 어떠한 나라를 지향하고 꿈꾸었는지를 알렌 컬렉션을 통해 알 수 있다.

특히 관광자원화를 해나가는 과정에서의 알렌 컬렉션은 대한제국 외교문화의 속살과 시대 적 전환의 합리적, 비합리적 측면의 문화적 발전 과정을 알 수 있다. 또한 외부세계와의 접촉과 수용 교류가 조선과 대비되는 대한제국의 어떠한 문화적 인간상을 추구했는지를 반문하게 해 줌으로서 쇄국정책과 천주교 박해에서 돌아선 대한제국의 모습으로 구분된 문화와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 그리고 오늘날 현대 한국인의 문화의 수용태세가 어디로부터 기인했는지, 역으로 현대 한국인의 생활영위양식이 도출된 문화의 기반과 현대 외교에서의 문화적 관점이 알렌 컬렉션 시대의 생활영위양식으로부터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밝히는 레퍼런스적 관광자원으로서의 역할이 기대 된다.

2) 문화재 활용한 관광자원화 국내 연구동향

우리나라 문화재활용 관광자원화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지정 문화재, 축제, 중요무형문화재 등 유무형의 문화재를 지정하고 등급화 하여 지역 관광개발 자원으로 활용하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관광산업이 활성화 되면서 문화재를 활용한 성공사례로 전통적인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하고 유적지를 관광지로 지정하여 편의시설을 조성하고, 천연기념물은 체험대상으로 하고 있다. 문화재의 관광자원화 활용 방법에 관해 박성수(1998)는 관광자원으로서 문화재자원에 관한 문화재자원의 보존과 관리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국내의 자료를 바탕으로 문화재의 개념과 분류 하고 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해제를 대분류에서 소분류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으로 이루어졌다. 관광자원의 개념과 분류기준을 국가별 학자별로 서술하였다. 이러한 문화재 관리를 일제 강점기 이후 연도별 지역별단체의 역할별로 비영리사단업인의 활동내용까지 그 변천 과정을 서술하였다. 이처럼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문화재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재 관리를 소유자와 관리자, 관리단체가 주체적의식을 가지고 법규와 명령 등 관련법에 따라 보존과 보호에 심혈을 기울여

우리의 문화유산이 국외로 유출되거나 훼손 또는 멸실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야 함을 언급하였다.

조용·박성수(2001)는 문화재 종류에 따른 관광자원화 방향을 제시하였는데 첫째, 역사문화(건조물, 유적지, 전통가옥 등)는 보존적 차원에서 기반시설과 함께 조성한다. 둘째, 문화재(옛날의 교통수단, 등)는 본래의 기능을 변화시켜 살리는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셋째, 문화관광지(문화유적지, 사적지 등)는 관광기반시설 확충하여 정비함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은 우리의 전통문화를 이룩한 그 바탕 위에 세계의 개화된 문화, 이문화를 배워 우리의 전통과 미풍이 추가 되어 당당히 주체적 문화의식이 확립될 것이다(박성수, 1998).

이러한 이유에서 다양한 문화재를 이용한 관광자원화 사례를 살펴보면 한상우·이상길·조상희·최현섭(2007)은 발굴유적지의 관광자원활성화를 위한 활용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매년 1,000건에 가까운 엄청난 수의 발굴과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가치를 적극 이용하여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도 가능한 여건으로 재창출 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김세기(2013)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리고 주민들에게 지역의 문화를 누리고 즐길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고령군에서 대가야 유적이 출토 되어 대가야문화재를 전시하여 가야문화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는 사례가 있으며, 문화재 향유 활동이 보편화하면서 보존에만 집중되었지만, 문화재의 가치 창출과 소통에 관심이 모아지면서 조선왕실의 대표적인 종묘와 궁궐 활용을 관광자원화 노력의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공주지역 문화재 관광인식에 대한 조사에서 무령왕릉이 다른 문화관광자원에 비해 문화적 가치를 방문객이 가장 많이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방문객이 무령왕릉에 대한 사전 지식정도가 보통인 수준으로 안내문을 많이 참조하고 방문 후 지식향상정도가 조금 향상 되었다는 방문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유기준, 1997).

다음은 문화재 관광자원화 관련 정책 및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의 문화재활용과 정책방향으로 김창규(2006)는 지방문화재의 문화재 보호법측면에서 보존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 만큼 지방문화재 관광자원화를 위해 마을마다 이벤트행사와 축제행사를 통해 다양한 체험상품으로 활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신평(2014)은 민족문화에 보고를 이루는 경주 문화재가 산재해 있음에도 문화재보존이라는 국가정책의 목표를 위해 국민 개인의 사유재산권 등 기본권의 침해와 지역경제발전의 저해가 되어 문화재를 일부 복원·정비하여 관광자원화 하는 정책의 검토에 기반한 입법의 필요성 제시하였다. 고궁 문화재관련 조용·박성수(2002)는 공간적 지정문화재를 관광지로 조성하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주로 체험적인 요소를 강조하며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한 각종 관광기반시설 및 수유시설의 확충으로 관광객 수를 증가 시켜 문화재를 알리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음을 제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은 공간적인 요소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지식, 정보, 기술이 국가의 핵심적 경쟁력 기반 요소인 경제사회에서(권명화·백철우, 2008, p.356)에서 인문, 사회학 분야에서 새로운 연구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3D 스캐너 활용한 문화재로서의 김나영·김성민·맹희영(2017)은 높은 가치로 측정되고 있는 관광자원의 가치, 기록물의 가치 등 행정박물관의 디지털 콘텐츠화 하는 방향으로 형상정보 저장과 실물 사진을 3차원 스캐닝을 통해 만든 후 컬러맵을 통해 텍스처 맵핑을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행정박물관은 관광 자원으로 가상 박물관의 콘텐츠로 사용이 되거나 국가 홍보 측면에서 활용되게 한다. 따라서 이러한 3D 스캐너의 발전은 3차원데이터 습득과 전시로 문화재 복원 및 보존에 활용할 수 있다. 또 다른 기술적 접근 연구로 백현순·유지연(2017)의 연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전자문화지도를 활용하여 무용기록 및 정보처리와 관련된 무용학에서 춤의 동작 혹은 무용공연을 기록하여 춤을 재현, 보존하기 위해 춤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요소를 파악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이 있다.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어 무용이 시공간 예술로서 공연 후 사라지는 일회성의 한계가 있어 다른 예술에 비해 낮게 평가되고 있는 문제를 극복하고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구글맵을 기반으로 시각적 표현효과를 강화시킨 스토리맵 형태의 전자문화지도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김중수(2009)는 일본에 유출된 오구라 컬렉션 한국문화재와 아타카 컬렉션 반환을 요청했지만 개인의 사유 컬렉션이란 이유로 반환되지 못하여 국립문화재연구소는 해외에 있는 한국문화재 학술조사 사업 중 하나로 오구라 컬렉션 한국문화재 도록을 발간하였고 아타카 컬렉션 한국도기들은 793점이나 되고 일본에 소재한 한국 기원 문화재가 공개전시를 통해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이다. 이들 컬렉션 반환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활용방안으로써 일본 내 한국문화재 소장 박물관 지원 등을 통한 한국문화 홍보와 일본에 소재한 한국문화재 소장기관 및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해의 소재 한국문화재가 보존되고 학술적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일본 유출 문화재의 환수 방안은 첫째, 일본 내 한국 기원 문화재의 공개 추진과 실태조사, 둘째, 문화재 유출 경위와 출처 조사, 셋째, 문화재 소장기관·단체 및 개인의 기증 활성화, 넷째, 다양하고 다층적인 문화재 환수전략으로 문화교류 차원에서 접근하여 영구임대와 장기대여 교환, 상호교류전시를 통한 문화재 반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김중수, 2009).

III. 알렌 컬렉션 황실문화재의 관광자원화 방향

대한민국 헌법은 ‘문화국가의 원리’ 또는 ‘문화국가의 이념’을 가지고 있다. 헌법 제9조는 그 핵심조항으로서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하여야 한다’ 라는 ‘국가의 의무 규정’으로 규정하였다(법제처). 이와 같은 헌법의 원리에 비추어볼 때 알렌컬렉션 황실문화재 환수를 통한 황실문화재 존재 가치와 성격은 전통 문화와 민족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문화재 도구라 볼 수 있다. 이러한 헌법적 의미의 가치를 행하기 위해선 민간차원의 의논과 절충 그리고 기증에 의한 반환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어떠한 형태로든 알렌컬렉션의 전시는 황실 문화재를 알리는데 의미 있는 전시가 될 것이다. 문화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정책적인 방향이 ‘보존’에서 ‘활용’으로 달라지고 있는 흐름(황희정, 외 2015)에서 강조하듯이 공급자나 수요자 입장에서 여전히 ‘문화재를 보존’의 의미도 갖고 있지만 ‘활성화 되고 공고히 이용’함으로 인해, 계승 발전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알렌컬렉션은 관광자원화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의 시대적 변화를 보여 준다. 전기, 자동차, 서양음악, 커피, 파티매너 등의 서양문물을 적극적으로 들여온 고종과 그의 외교대신이었던 알렌과의 교류와 체험에서 나온 문화재라는 인식을 하여야 그 시대의 생활 영위 방식을 알 수 있다. 어떠한 목적을 추구하는 문화적 인간이 대한제국의 외교 문화 등 다양한 연계분야의 가치를 추구했는지를 관광자원화를 통하여 대중화 시키고 보여 줄 수 있다. 그리하여 오늘날 현대 한국인의 문화가 가지고 있는 품격의 기반을 탄탄히 보완할 수 있으며 전통과의 괴리감이 덜한 이시대의 추체험적 생활영위양식 자체가 관광자원화 될 수 있다. 알렌컬렉션 황실문화재 관광자원 활성화 방안 제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알렌컬렉션 문화재 박물관·관광 전시회는 대한제국의 형성과 변천과정 그리고 황실문화의 이해를 돕는다. 궁궐기행과 궁궐 장소성에 대한 문화해설가의 황실에 대한 정보와 함께 설명하는 것은 ‘유럽 왕실의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당시 상황을 연상케 하여 간접적인 체험을 할 수 있다. 박물관은 관광과 융합하여 박물관 전시 체험 콘텐츠를 IT화 하거나 문화상품화 응용을 통해 문화 콘텐츠의 자료로서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내는 장소가 될 것이다. 황실박물관 설립은 역사·문화적 여가의 공간으로서 뿐만 아니라,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평생학습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둘째, 황실문화재 지정기준관련 법률을 재정할 필요성이 있다 문화재보호법과 같이 지정문화재 제도 중심으로 문화재보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이유는 문화재의 대상이 광범위하고 수없이 많아서 이를 모두 법률로서 보호할 수 없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직접적으로 보존·관리함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상의 한계가 존재함에 기인한다. 이러한 지정제도가 1962년 제정되었고 문화재를 보존가치만으로 분류하는 것이 활용도나 국민이 이해하는데 있어 역사적 가치인식이 단계별로 중요하게 생각되는지는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현실에 맞게 황실 문화재 관련법과 제도를 마련하여 문화재관리와 운용이 편리해야 할 것이다.

셋째, 황실문화재 홍보 관련하여 이용자, 내지는 관광객, 방문객이 황실문화재에 대해 그저 고궁에 있는 유물 정도로 생각하고 인식하며 왜곡된 지식을 습득하기보다는 사전에 ‘어떠한 형태’의 관람이나 체험 이든 안내인의 집단 교육이 필요하며 안내문, 소개 브로슈어, 관련책자, 대중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 판단된다. 특히나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대한 역사인식이 부족’하며 문화재를 바라보는 시각이 부족하다. 따라서 역사에 대한 사전교육 뿐만 아니라 ‘황실문화재를 관람하는, 체험하는, 국제적 매너와 지식수준’의 함양이 필요하다.

넷째, 타 지역이나 관광산업정책과 같이 2018년 황실문화재 발전방안 및 황실문화재 활용방안 등 황실이 주가 되는 주요 정책을 관련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방안이나 황실 문화재 육성추진사업

단을 구성하거나, 황실복원사업 비영리단체들의 활동을 돕는 재원을 마련하여 다수의 전문가 중심으로 사업을 구상하여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 조선황실의 의미를 재인식 시켜 흔들림 없는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귀중한 시도가 될 수 있다.

다섯째, 황실문화재 보존철학의 변화를 시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문화재 보호의 기본원칙이 '원형유지'를 선언하고 있지만 환경변화에 따른 보존요구가 수용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따라서 재조립, 적용과 재사용, 재축, 복제 등이 허용될 수 있어야 한다. 문화재자원 등의 변화 및 보존의 이분법적인 편향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여섯째, 대한제국 황실문화재가 온전히 보존·연구되게 지원하는 정책과 사업은 대한민국 민족문화의 정수인 문화재의 가치를 고조시키는 동시에 한국의 전통문화를 세계 속에서 명성을 갖게 하는 것이다. 특히 미국 박물관과 미술관에는 많은 대한민국 문화재가 소장되어 있으나 연구조사 및 체험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따라서 황실문화재에 대한 조사와 보존처리를 위한 기술지원과 모니터링체계를 활성화해야 한다.

일곱째, 황실문화재의 고유성을 체험하기 위해 전자문화지도와 같은 스토리맵을 활용하여 황실문화재에 대한 다양한 스토리 텔링을 다양한 언어로 설명되어지고 관련 이미지와 모션을 함께 볼 수 있어 역사적인 사실을 이해하고 흥미롭게 즐길 수 있다고 할 수 있다(허용호, 2006; 김종혁, 2003). 왜냐하면 앞으로 4차산업 관련하여 다양한 직 간접적 체험요소의 관광상품이 개발될 것이지만 황실 문화재는 언제나 보편적인 접근에서의 가치를 창출하기 보다는 더 앞선 기술을 바탕으로 국민의 공감을 가질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따라서 아직 개념적으로 황실에 대한 이미지가 궁궐이나 박물관에서 보는 이미지와 같은 진정성과 역사성, 희귀성 등을 느낄 수 있게 하려면 재미와 흥미 위주 보다는 공급자 중심의 접근에서 관광객의 시각과 인지를 파악하여 여느 축제나 체험상품에서 경험하는 프로그램을 수단으로 황실의 품격이나 예절 등이 한국 사회의 국가적 사회적 Ritual의 기본 바탕과 문화과학적 효율적 도구로서 자리매김하며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IV. 결론

본 연구는 그 동안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던 1차 자료들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한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로 임명되었던 알렌의 대한제국시대 컬렉션이 이 지문을 통해 황실문화재로서 아직도 살아 숨 쉬고 있음을 확인하고, 국의 황실문화재 환수를 공문화하면서 황실의 문화와 황실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이론적 시사점은 관광자원의 개념에 생활 영위양식과 이를 외교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문화과학적 탐색을 통해 관광자원개발의 관점을 가지게 했다는 것에 있다.

문화재에 대한 관광자원화는 현재 훼손과 보존의 논쟁에 있다. 하지만 실무적인 시사점으로 볼 때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문화전쟁 이라할 수 있는 상황에서 알렌컬렉션은 우리의 문화재에 대한 재인식을 넘어 문화재에 대한 사회문화적-컬처데인먼트적 기능가치를 높일 것이다. 지식기반사회의 등장으로 모든 산업의 경쟁력이 인적자원의 창의성에 기반을 둔다는 차원에서 이러한 문화재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새롭게 황실의 특수한 의미를 널리 알리고 진정성이 담겨있는 황실문화재의 활용도를 높여야 할 때이다. 더구나 알렌 컬렉션은 대한제국 시대의 외교문화와 서양인과의 근대적 교류문화를 보여준다. 무형적인 외교매너와 품격문화는 훼손과 보존의 논쟁에 좋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이 연구는 조선황실뿐만 아니라 대한제국의 존재를 부각 시키고 이를 통해 해외에 산재한 대한제국의 유물 및 한국의 문화재의 환수에 대한 국민적, 국제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의지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황실과 왕실문화재는 박물관에서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국민들의 고리타분한 박물관의 유물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게 하는 고유성과 주제성을 가질 수 있다. 다양한 체험을 통해 우리나라 전통유물의 개념을 뛰어 넘어 자긍심과 존재가치를 드높이며 세계위상을 떨치게 될 것이다. 향후 황실문화재 관련하여 중장기 발전계획으로 황실문화재 관리기관을 건립하여 황실의 품격 있는 문화재와 문화상품으로써 일반 전통문화재를 뛰어 넘어 황실문화 상품만의 독특성을 창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곧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황실문화가 지속가능한 한류관광으로써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창덕궁, 종묘, 조선왕릉 등 조선왕실 문화유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 등 국내 외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이를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황실문화재 가치재창출 여건의 증대 의미를 담고 있다. 향후 황실문화, 황실복원, 황실가치를 학술적, 실무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황실의 개념적 정립과 황실에 따른 광범위한 문화재 가치기준을 새롭게 정립하고, 현재 조선왕실 문화중심의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고궁박물관에 황실 문화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황실의 전반적 소개와 황실문화 생활사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황실 문화재의 존재마저 희미해져 버린 지 오랜 된 지금, 황실의 문화재 존재와 이러한 황실 문화재의 사회문화적 기능을 극대화하여 국가 통합과 민족 자긍심의 실제적 상징 그리고, 사라지지 않을 국가 품격의 정신적인 역할을 바랄 수 있으며 효율적 홍보와 향유 수단인 관광문화재로서의 실리적인 역할까지도 담당케 하여 국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나아가 황실 문화재의 보존과 이용은 과거 패러다임의 체험수준과 달리 숨은 콘텐츠를 찾아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접목하여 이용자와의 상호 교감이 있을 때 비로소 활용가치가 관광자원으로써 발전할 수 있다.

베버의 이념형적 이간인 '문화인'의 의미에서 품격있는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목적 실현에 알맞은 효율적 도구가 황실 문화재의 무형적 가치로 인해 파생된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문화재의 도구적 효율성과 그 목적성은 오늘날 현대인의 문화 방식의 틀 속에서 품격 있는 가치를 형성하고 현대 한국인의 매너 형식에도 의미를 부여 할 수 있다. 이렇듯 황실 문화재 관련 문화 체험에 대한 베버의 목적 합리성의 부여는 앞서 언급했듯 삶의 궁극적인 가치와 의미에 준거한 개인의 모든 행위를 보다 품격 있는 삶의 측면으로 이끌고 한국인이 가지는 독특한 가치의 부여라는 가치 합리적 행위로 결정될 수 있다

References

- 김광백(1994), “대한황실 복원 꿈꾼다”, *한국논단*, 12월호.
- 김나영·김성민·맹희영(2017), “행정박물관 3D정보의 실감형 색채 및 질감 표현기술연구”, 한국전산업융합연구원, *한국과학예술포럼*, 28(3), 13-21.
- 김덕영(2012), “문화과학 및 사회과학의 논리와 방법론”, *길*, 61-85.
- 김세기(2013), “대가야 문화재를 활용한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동국대학교 신라문화 연구소, *신라문화*. 41, 57-95
- 김연화(2016), “대한제국 황실표상으로서의 이화문이 지닌 융복합적 존재형식의 정체성 연구”, *한국과학예술포럼*. 24, 79-88.
- 김종수(2009), “일본 유출 문화재의 환수 및 활용방안”, *민속학연구*, 24, 71-94.
- 김종혁(2003), “디지털시대 인문학의 새 방법론으로서의 전자문화지도”, *국학연구*, 12, 263-290.
- 김준혁(2014), “조선왕실기록을 기반으로 하는 수원화성의 문화콘텐츠 활성화”, *인문콘텐츠*(34), 213-237.
- 김지선·이훈(2009), “고궁관광 평가요인과 만족도 분석-진정성과 HISTOQUAL을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33(6), 37-54.
- 김지은·박은수(2016), “문화유산 광희문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공간 활성화 콘텐츠 연구”, 한국전산업융합연구원, *한국과학예술포럼*, 23, 95-109.
- 김창규(2006), “기념문화재의 보존·활용을 위한 법제개선 및 정책방향”,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19, 167-183.
- 김태현·박숙진(201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자원개발과 관광정책의 역할”,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5), 403-412.
- 권명화·백철우(2008), “R&D정책의 이상과 실천: R&D효율성 및 영향요인에 대한 국가간 비교”,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359-390.
- 박동석(2017), “문화재활용 사업모니터링 및 평가-2016년 생생문화재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5(1), 90-103.

- 박성수(1998), “관광자원으로서 문화재자원에 관한 이론적 고찰”, 대한관광정보학회, *관광정보연구*, 2, 141-176.
- 변찬복·한수정(2013), “세계문화유산의 관광체험, 진정성 및 관광만족간의 관계”, *호텔경영학연구*, 22(4), 261-282.
- 백현순·유지영(2016), “스토리맵(storyMap) 형식의 한국무형문화재 춤 전자테마지도 구축 제안”, *한국무용연구*, 34(3), 67-87.
- 신평(2014), “경주 문화재정책의 검토에 기반을 둔 새로운 입법의 필요성 연구”,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45, 151-182.
- 염동훈(2003), “문화과학과 사회과학의 방법론. 1”, 서울: 일신사.
- 유기준(1997), “공주지역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인지도 분석. 한국여행학회”, *여행학연구*, 6, 179-200.
- 이창근(2015), “문화유산의 활용과 관광자원화 방안: 궁궐·종묘의 활용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예술경영학회, 예술경영연구*, 35, 207-232.
- 조웅·박성수(2001), “문화재의 관광자원화 방안에 관한 연구”, *관광정보연구*, 9, 247-267.
- 한상우·이상길·조상희·최현섭(2007), “문화재 발굴현장의 역사체험 및 관광화 방안”, *경남발전연구원, 중점정책연구 기본연구*, 10, 1-88.
- 황희정·박창환·이훈(2015), “문화재 활용, 진정성의 구현인가, 훼손인가”, *한양대학교 관광연구소, 관광연구논총*, 27(4), 3-26.
- 한국문화재정책학회(2010), 국립 고궁박물관 중장기 발전계획, 12월.
- 허용호(2006), “전자문화지도 연구에서 민속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활용”, *비교민속학*, 31, 467-508.
- 최호근(2005), “19세기 말의 문화사 담론과 막스 베버의 역사적 문화과학”, *역사학보*, 6, 237-265.
- 법제처, 관광법규.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query=관광법규> (accessed Nov 11, 2022)
- Weber, Max.(1964), *The Theory of Social and Economic Organization*. Translated by A.M. Henderson and Talcott Parsons. Edited with an introduction by Talcott Parsons The Free Press, New York.
- Weber, Max.(1968), *Economy and Society: An Outline of Interpretive Sociology*, Edited by Guenther Roth and Claus Wittich Bedminster Press, New York.